



안전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 (주)팔도 이천공장

취재 김성대 기자 gshu002@safety.or.kr

우리나라 국민 대표 식품인 라면. (주)팔도는 예전부터 라면 생산기업으로서 그 인기가 높아왔다. 꼬꼬면, 비빔면, 왕뚜껍 등이 팔도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라면제품이다.

팔도는 올해 1월 1일자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분사하여 독립했다. 이천, 진천, 나주 등의 공장을 통해 라면뿐만 아니라 비락 식혜, 커피 등 각종 음료를 생산하는 종합식품회사로서 입지를 구축해왔다. 여기에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의 현지 공장을

통해 우리나라 라면의 우수성과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봉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상과 명성에 걸맞게 팔도는 KOSHA18001 및 HACCP, ISO, 녹색기업 등의 인증을 통해 생산, 환경,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전 직원들도 '혁신경영의 추구, 인간존중'이라는 회사 경영방침에 맞춰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에 매진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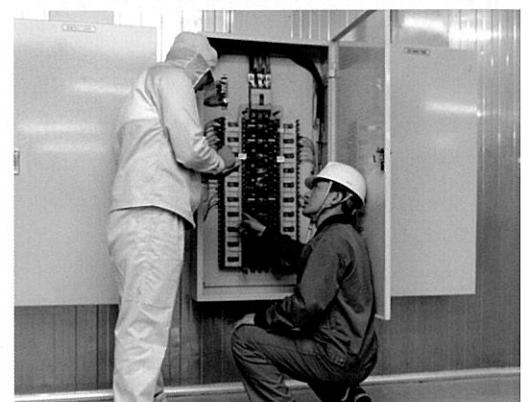
기계설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여느 업종도 그렇지만 종합식품업체의 경우 세계 일류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만든 제품이어야 '안전한 먹거리'라는 고객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그래야만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회사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곳 (주)팔도도 안전보건과 환경 등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팔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크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사전에 위험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자 스스로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반복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수칙의 준수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이곳의 모든 안전관리는 이 3대 핵심 포인트를 토대로 이뤄진다. 또 이러한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다.

이곳의 공정은 크게 면제조 공정과 스프제조 공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스프공정은 혼합 → 이송 → 포장 → 정렬 → 출하의 공정으로 이뤄져 있다. 스프공정의 경우 모든 공정이 밀폐되어 특별한 위험요소는 없지만, 문제는 면제조 공정이다. 밀가루(싸이로) → 믹서 → 롤러 → 절출 → 스템박스 → 후라이어 → 냉각 → 포장 → 로봇적재 → 출하 순의 면제조 공정에는 위험요소가 곳곳에 잠재해 있는 가운데, 특히 롤러에서 손가락을 협착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이에 롤러 상부 전체에 비상정지 스위치와 연동된 레버를 설치해놓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체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정을 자동화시킨 가운데 해당 기계에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놓았다. 또 모든 위험요소에 비상정지 센서를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오류로 접근했을 때에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



함께 하는 안전관리 추구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무재해의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 무재해도 그만큼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직원들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곳은 안전에 대한 직원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를 높여나간다. 연말 안전활동의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사원에게 월레조회 시 표창하고 상품으로 가족식사권을 지급하고 있다. '칭찬릴레이'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 포상제도는 직원들이 직접 추천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반응이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위험예지훈련 등 기본적인 안전활동도 매우 강조한다. 매일 오전 작업 시작 전 위험예지 훈련을 각 팀장의 주재 아래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전 직원들이 공유케 하고 있다. 전 직원들에게 위험을 보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려는 취지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무재해 사업장 기원대회를 전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한다. 또 10월에는 전사 차원의 소방훈련들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기본적인 화재 대처능력도 배양시켜나가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시키기 위한 안전교육도 반복적이고 철저히 시행한다. 이때에는 원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감성적인 교육 차원으로 접근한다. 근로자들에게 안전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조건임을 주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소통의 안전문화 정착

이곳은 임직원들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시 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휴게실에서 공공장장과 직원들 간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다과와 음료를 곁들이면서 임직원간에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안전 및 생산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임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는 것은 물론 즐겁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듯 (주)팔도의 안전은 안전 관리자 혼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선진 안전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를 펼치는 (주)팔도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



“당신의 재해 - 가족에겐 재앙입니다”



박우찬 공장장

위 글귀는 우리 공장 현관 입구에 비치된 것입니다. 저의 평소 안전에 대한 소견은 이 글귀로 정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측면에서 보면 품질이 중요합니다. 품질이 곧 기업의 생명인 것이지요. 하지만 기업의 주춧돌인 우리 직원들께겐 안전이 곧 생명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안전해야만 우리 팔도 이천공장이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저는 관리 자들과 함께 공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임직원 모두가 행복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 경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의 하나 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해온 사회환원사업을 더 열심히 하여 팔도 이천공장 뿐만 아닌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니 인터뷰